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연세대 경제학부 김미혜

저는 2015학년도 수능을 제가 지원했던 대부분의 수시 전형의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쳤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성적은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저는 자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능을 망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의욕을 잃었습니다. 가정형편도 어려워 재수 학원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독서실에 앉아 한숨을 쉬며 억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때 인터넷에서 우연히 종로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종로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종로학원의 장학금 제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해야 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의 합격이라는 성취는 이루어 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학기(2월~6월)

저는 작년에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이 차이가 컸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잘 보든, 못 보든 모의고사 등수가 아니라 틀린 문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수능 성적은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이제까지 본 시험 중 최고의 점수가, 어쩌면 최악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로부터 다시는 틀리지 않는 법을 배우야 합니다. 자만해서도,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저는 수업을 예습, 복습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기본기를 튼튼히 다져야 하는 1학기에 특히 선생님들께서 개념과 가지고 계산 노하우를 전달하는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을 더 공부한다는 생각에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긴장하게 되는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실력은 1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습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들께 배우는 개념들을 재수 초부터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면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큰 공책을 하나 사서 과목별로 부분을 나누고, 복습하면서 중요하다고 싶은 개념은 메모를 했습니다. 복습의 차원에서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수능이 가까웠을 때 마무리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은 논술 정규수업에도 해당하는데, 논술 수업시간에 배우는 개념 또한 내면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업들을 모두 예습, 복습하느라 자신만의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해 불안하다면, 평일에 예복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자기 공부는 주말을 이용하세요. 저는 주말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공부량이 많은 한국사와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수능이 다가가기 전인데, 1년 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재수 초반에 잠을 줄여서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2학기(7월~9월)

5개월 정도를 열심히 달려왔으니 지치기도 쉽고, 방학이 있어 풀여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 친구들이 연락이 올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성과가 보통 2~3개월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잠생각 때문에 공부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으로 잠깐 머리를 식히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수생활이 언제 끝나나 싶고, 지겹고 힘들겠지만 이 시기는 아쉬울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보고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겠지만, 과목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제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 있어서 소홀했던 과목이 뒤투수를 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한 과목을 주말에 중점적으로 했지만 평일에는 특정한 과목에 공부 시간이 치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파이널(9월 모평~수능)

여러분들은 이때에 매우 긴장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시기에 수능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학원의 커리큘럼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부족한 과목만 집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 있는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던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수능 모두 6월, 9월 평가원에서 쉽게 나온 것과 달리 어렵게 나왔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모든 과목이 난이도 있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렵게 나올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지식들을 새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년 동안 쌓아온 지식의 범위 내에서 수능이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기출문제나, 학기 초에 배웠던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다시 보아야 합니다. 파이널에는 마무리 문제풀이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모의고사를 보기 한 시간 전에 보았던 영어 단어가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수능 또한 바로 전날에 보았던 개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시기에 구애받지 마세요. 저는 수능 2일전 까지도 영어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실전 연습은 되도록 평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평가원의 경향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 준비

저는 작년에 입시를 겪으면서 최상위권 대학에 정시전형보다 수시전형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수능 공부에 비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논술 정규수업 복습을 틈틈이 했고, 5월 달부터 논술 특강을 듣기 시작해,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을 치르는 10월 달까지 거의 매주 일요일 특강 4시간과 그 이후 답안을 다시 써보는 시간 2시간 정도를 논술에 투자했습니다. 정규수업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제가 답안을 보며 스스로 평가한 것이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때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선생님께 질문도 자주 했습니다. 종로학원 논술 선생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시고 수업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특강을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정규수업에서 배운 개념들을 내면화하고 꾸준히 논술에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논술 실력에 있어 슬럼프 기간이 있었던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직전에, 다시 제 감을 끌어올려 준 것도 정규수업 복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술에만 시간을 투자하느라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지원한 모든 논술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이 글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절대 '나는 안 될거야.'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 또한 작년 수능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고, 같은 반의 특출한 친구들에게 기죽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현재 노력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조금씩 전진해 가세요. 저 또한 수능 시험, 논술 시험을 보러가기 전에 작년의 저보다는 성장했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다음 해에는 원하는 대학의 캠퍼스를 누비시길 바랍니다. 파이팅.